

## 정서표현 양가성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윤혜성<sup>†</sup>      박지선<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데이트 폭력의 세 가지 유형(신체적, 정서적, 성적)에 미치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영향을 알아보고, 그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미혼인 2-30대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세 가지 데이트 폭력 유형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과 세 유형의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완전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정서표현 양가성, 관계적 공격성, 데이트 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 제1저자: 윤혜성,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3년 5월, 데이트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한 3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귀가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조민정, 2023). 2018년 2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가해자 엄정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등에 관한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래로 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8%, 입건 건수는 38% 증가하는 등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22). 이와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접근은 아직 미비하여, 강력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박외병, 2018). 특히 데이트 폭력 범죄의 특성 및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나, 데이트 폭력 가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원혜욱, 2022). 이에, 데이트 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데이트 폭력의 가해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 교제 폭력(양혜원, 신혜섭, 2006)이나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폭력(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명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선 이성 교제 폭력의 경우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되며(양혜원, 신혜섭, 2006),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폭력은 교제 중인 관계 외에도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 포함하는 대상의 범위가 더 넓

다(홍영오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제 중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합의되지 않은 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입힐 의도로 저지르는 행위인 데이트 폭력(Straus, 2004)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데이트 폭력은 대표적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오주령, 박지선, 2019;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우선 신체적 폭력은 상대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것으로, 상대를 밀치거나 발로 차고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정서적 폭력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과 함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상대가 위협을 느끼거나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며, 성적 폭력은 강요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Straus et al., 1996).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즉,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연인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 상대에 집착하거나(주지현, 서경현, 2015), 어린 시절 부모의 신체적 학대와 같은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이은민, 최은주, 이주희, 2022). 더불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은 높은 자기애와 함께 권위주의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나은, 박지선, 2022),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불안애착과 함께 정서 조절 능력이 낮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Théorêt, Hébert, Fernet, & Blais, 2021).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우선 그간 연구가 미흡하였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의 표현과 억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정서표

현 양가성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 정서표현 양가성과 데이트 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서를 표현한 뒤 후회하는 등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특성이다(King & Emmons, 1990). 특히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예상되면,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정서표현의 결과에 대한 염려 사이에 갈등을 겪어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최해연, 민경환, 2007).

정서표현 양가성은 대인관계 및 심리적 적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및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야기한다(조한익, 이미화, 2012). 따라서 정서표현 양가성은 낮은 대인관계 만족도로 이어지고, 연인 간의 사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성 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조현정, 이승연, 2014). 실제로 부정적 정서표현의 억압이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Sullivan, Leifker, & Marshall, 2018), 정서표현의 억제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Landa, González, Martínez, Leiva, & Castro, 2024). 특히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은 데이트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저해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이은민 등, 2022),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부정적 정서를 전달하지 않고 억제하는 등 회피적 대처 전략을 보인다(김민정, 조민아, 2017).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의견 대립 시 대화나 타협 등으로 이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대처를 보이는데, 이렇게 억압된 정서는 때로 조절되지 않은 채 부적절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정유지, 2022). 특히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은 우회적인 공격성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공격성의 한 형태인 관계적 공격성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 관계적 공격성과 데이트 폭력

관계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를 통제하고자 일부러 상대의 대인관계를 손상하는 등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으로, 상대를 고의로 집단에서 배제하거나 험담을 통해 사회적 평판에 해를 입히고,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성적 유형의 공격성과 같은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은밀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발현된다(김현승, 박지선, 2023). 즉,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상대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은밀히 퍼뜨려 사회적 관계를 훼손시키고, 상대를 대면하기보다는 일부러 피하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Ellis, Crooks, & Wolfe, 2009).

특히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은 상대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질 것이라 협박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견 정서적 폭력과 유사해 보이지만 관계적 공격성은 상대의 대인관계에서의 손상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폭력과는 구분된다(Linder, Crick, & Collins, 2002).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갈등에 지인이나 가족과 같은 제삼자를 끌어들이는 점에서 정서적 폭력과는 차별점을 가진다(Carroll, Nelson, Yorgason, Harper, Ashton, & Jensen, 2010). 연인 사이의 관계적 공격성은 크게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뉜다(Carroll et al., 2010). 첫째는 사회적 평판 손상(social sabotage)으로, 상대방에 화가 났을 때 타인에게 상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등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이다. 둘째는 애정 철수(love withdrawal)로, 상대에 화가 나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 등 우회적으로 표현되는 공격성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으면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낮은 심리사회적 적응도를 보인다(Crick, Ostrov, & Werner, 2006). 특히 관계적 공격성이 높으면 신체적 공격성 및 언어적 공격성 또한 함께 높은 경향이 있다(Dewi & Kyranides, 2022). 또한 높은 관계적 공격성은 연인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았다(Linder et al., 2002). 더불어, 데이트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신체적 공격성도 높게 나타나는 등(김남영, 박완주, 2021), 최근 들어 관계적 공격성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Hayes, Lloyd-Richardson, & Marsee, 2021).

이에, 본 연구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데이트

폭력 간 관계를 알아보고, 둘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데이트 폭력의 세 가지 유형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데이트 폭력 사이를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 그간 연구가 미흡하였던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정서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트 폭력 가해 경로에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정서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데이트 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이 이를 사소한 일로 취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이영돈, 2018),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범죄 특성 및 가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데이트 폭력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혼 남녀 각 8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절반 이상이 20대(36.8%)나 30대(25.6%)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치안정책연구소, 2022),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2-30

대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여성 참가자 80명의 평균 연령은 30.58세 ( $SD = 4.72$ )이었고, 남성 참가자 80명의 평균 연령은 30.63세( $SD = 5.06$ )이었다. 이성 교제 기간의 평균은 여성 참가자의 경우 28.44개월 ( $SD = 25.55$ ), 남성 참가자의 경우 24.04개월 ( $SD = 16.25$ )이었다. 여성 참가자들과 남성 참가자들의 연령과( $t(158) = -.07, n.s.$ ) 교제 기간( $t(158) = 1.30, n.s.$ )에서의 평균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측정도구

##### 정서표현 양가성

King과 Emmons(1990)의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 Questionnaire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역하고 타당화시킨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이 있으며,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King과 Emmons(1990)에서 .89였고, 최해연과 민경환(2007)에서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측정을 위해 Straus 등(1996)이

개발한 Conflict Tactics Scale 개정판(CTS-2)의 가해 경험 척도를 바탕으로, 홍영오 등(2015)에서 활용된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 정서적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 그리고 성적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 등 총 3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의 경우 ‘상대방을 벽 쪽으로 세계 밀어붙인 적이 있다.’, ‘상대방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서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성적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으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동의한 적 없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은 1에서 5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1은 ‘전혀 없다’, 5는 ‘매우 자주 있다’를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많음을 뜻한다. Straus 등(1996)이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신체적 데이트 폭력이 .86, 정서적 데이트 폭력 .79, 성적 데이트 폭력 .87이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순서대로 .96, .89, .97이었다.

##### 관계적 공격성

Nelson과 Carroll(2006)의 Couples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Scale(CRAViS)을 정유지(2022)가 번역, 수정한 척도를 사용해 참가자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총 11 문항으로, ‘애인에게 화가 나거나 질투가 났을 때, 그에 대해 헐뜯거나 부정적인 정보

를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그의 평판을 손상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애인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에게 침묵으로 시위한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은 ‘전혀 없다’, 5는 ‘매우 자주 있다’를 뜻해 점수가 높을수록 연인 사이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유지(2022)가 보고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7이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분석 방법과 절차

SPSS 25.0과 PROCESS macro 4.0(Hayes, 2022)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데이트 폭력의 세 유형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정서표현 양가성과 세 유형의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해 분석하였다(Hayes, 2022).

## 결 과

###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술통계와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감정 표현에 주저하거나 후회를 더 많이 할수록 연인에게 더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 모두와 각각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세 유형의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았다.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               | 1       | 2       | 3       | 4       | 5    |
|---------------|---------|---------|---------|---------|------|
| 1. 정서표현 양가성   | 1       |         |         |         |      |
| 2. 관계적 공격성    | .311*** | 1       |         |         |      |
| 3. 신체적 데이트 폭력 | .160*   | .634*** | 1       |         |      |
| 4. 정서적 데이트 폭력 | .265**  | .534*** | .715*** | 1       |      |
| 5. 성적 데이트 폭력  | .197*   | .720*** | .882*** | .563*** | 1    |
| M             | 3.16    | 1.73    | 1.37    | 2.04    | 1.30 |
| SD            | .63     | .74     | .73     | .83     | .73  |

\* $p < .05$ , \*\* $p < .01$ , \*\*\* $p < .001$

트 폭력 각각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세 유형의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았다. 데이트 폭력은 세 가지 유형 모두 서로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하였다. 즉, 남성 참가자가 여성 참가자보다 신체적, 성적 데이트 가해 경험이 더 많았다. 그 외에 정서표현 양가성이나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정서적 데이트 폭력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의 주요 변인에 있어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t = -2.67, p < .01$ ), 성적( $t = -2.60, p < .05$ ) 데이트 폭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다음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 세 가지 데이트 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성별과 연령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주요 변인에서의 성차

|            | 성별       |           |          |           | <i>t</i> | <i>df</i> |
|------------|----------|-----------|----------|-----------|----------|-----------|
|            | 여성       |           | 남성       |           |          |           |
|            | <i>M</i> | <i>SD</i> | <i>M</i> | <i>SD</i> |          |           |
| 정서표현 양가성   | 3.26     | .57       | 3.07     | .67       | 1.879    | 158       |
| 관계적 공격성    | 1.75     | .62       | 1.70     | .85       | .447     | 144       |
| 신체적 데이트 폭력 | 1.22     | .50       | 1.52     | .88       | -2.673** | 124       |
| 정서적 데이트 폭력 | 1.98     | .76       | 2.10     | .90       | -.852    | 158       |
| 성적 데이트 폭력  | 1.16     | .49       | 1.45     | .88       | -2.604*  | 124       |

\* $p < .05$ , \*\* $p < .01$

표 3.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신체적 데이트 폭력 |         | 정서적 데이트 폭력 |         | 성적 데이트 폭력 |         |
|----------|------------|---------|------------|---------|-----------|---------|
|          | <i>B</i>   | $\beta$ | <i>B</i>   | $\beta$ | <i>B</i>  | $\beta$ |
| 상수       | -.045      |         | .295       |         | -.367     |         |
| 연령       | -.005      | -.035   | .000       | -.002   | -.002     | -.017   |
| 성별       | .335       | .230*** | .173       | .104    | .332      | .229**  |
| 관계적 공격성  | .635       | .641*** | .564       | .499*** | .714      | .726*** |
| 정서표현 양가성 | -.008      | -.007   | .165       | .125    | .005      | .004    |

\*\*\* $p < .001$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예측하는 모델의 설명력은 45.6%이었다( $R^2 = .456$ ,  $adjR^2 = .442$ ,  $F = 32.47$ ,  $p < .001$ ). 구체적으로 성별과( $\beta = .230$ ,  $p < .001$ ) 관계적 공격성이( $\beta = .641$ ,  $p < .001$ ) 신체적 데이트 폭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일 때 신체적인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데이트 폭력의 경우, 모델의 설명력은 30.7%이었다( $R^2 = .307$ ,  $adjR^2 = .289$ ,  $F = 17.14$ ,  $p < .001$ ). 오직 관계적 공격성만이 정서적 데이트 폭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499$ ,  $p < .001$ ). 즉,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데이트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데이트 폭력을 예측하는 모델의 설명력은 57.1%이었다( $R^2 = .571$ ,  $adjR^2 = .560$ ,  $F = 51.66$ ,  $p < .001$ ). 성별( $\beta = .229$ ,  $p < .001$ )과 관계적 공격성이( $\beta = .726$ ,  $p < .001$ ) 성적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 여성보다 남성일 때 성적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서표현 양가성과 데이트 폭력 간 관계적

#### 공격성의 매개효과

앞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세 유형의 데이트 폭력과 모두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관계적 공격성은 데이트 폭력을 예측하는 세 가지 모델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정서표현 양가성과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4.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Hayes, 2022). 모든 매개효과 분석에서 성별과 연령은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정서표현 양가성과 신체적 데이트 폭력 사이의 매개효과

먼저 정서표현 양가성과 신체적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1에 정리하였다.

우선 정서표현 양가성이 신체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총효과( $b = .22$ ,  $t = 2.48$ ,  $p < .05$ )가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관계적 공격성( $b = .36$ ,  $t = 4.04$ ,  $p < .001$ )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적 공격성이 신체적 데이트 폭력( $b = .64$ ,  $t = 10.26$ ,  $p < .001$ )에 미치

표 4. 정서표현 양가성과 신체적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 경로                          | <i>b</i> | <i>SE</i> | LLCI   | ULCI  |
|-----------------------------|----------|-----------|--------|-------|
| 총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신체적 폭력           | .2230    | .0900     | .0453  | .4007 |
| 직접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신체적 폭력           | -.0080   | .0732     | -.1526 | .1365 |
| 간접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관계적 공격성 → 신체적 폭력 | .2310    | .0889     | .0781  | .42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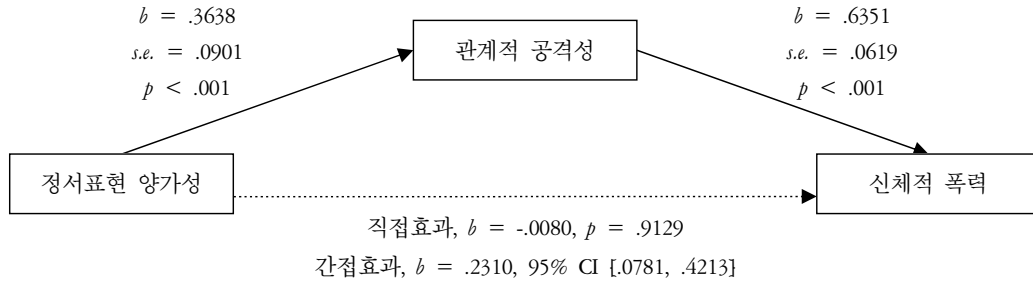


그림 1. 정서표현 양가성과 신체적 데이트 폭력 사이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모형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신체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b = -.01, t = -.11, n.s.$ ), 관계적 공격성을 투입하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고( $b = .23, 95\% \text{ CI } [.0781, .4213]$ ),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가리킨다.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 사이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

는지 분석하였다(표 5와 그림 2 참조).

그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 사이의 총효과( $b = .37, t = 3.60, p < .001$ )가 유의하였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영향( $b = .36, t = 4.04, p < .001$ ) 역시 유의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이 정서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b = .56, t = 7.07, p < .001$ ) 또한 유의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정서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 = .17, t = 1.75, n.s.$ ), 관계적 공격성을 투입한 간접 효과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b = .21, 95\% \text{ CI } [.0816, .3435]$ ).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나타낸다.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표 5.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 경로                          | <i>b</i> | <i>SE</i> | LLCI   | ULCI  |
|-----------------------------|----------|-----------|--------|-------|
| 총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정서적 폭력           | .3705    | .1028     | .1674  | .5736 |
| 직접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정서적 폭력           | .1654    | .0943     | -.0208 | .3516 |
| 간접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관계적 공격성 → 정서적 폭력 | .2051    | .0683     | .0816  | .3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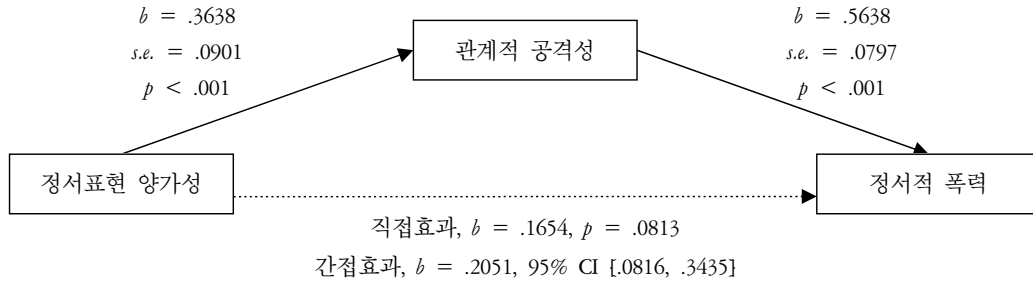


그림 2.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 사이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모형

공격성이 높았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정서적인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데이트 폭력 사이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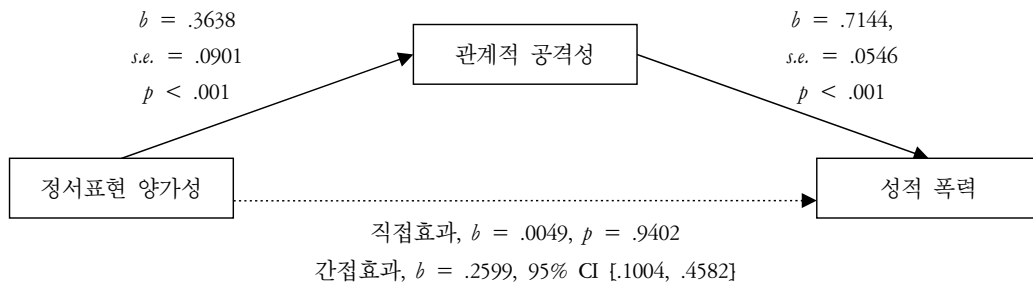
이번에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데이트

폭력 사이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 분석 결과를 표 6, 그림 3에 표시하였다. 우선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총효과( $b = .26, t = 2.98, p < .01$ )가 유의했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b = .36, t = 4.04, p < .001$ )과 관계적 공격성이 성적 데이트 폭력에( $b = .71, t = 13.09, p$

표 6.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 경로                         | <i>b</i> | <i>SE</i> | LLCI   | ULCI  |
|----------------------------|----------|-----------|--------|-------|
| 총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성적 폭력           | .2648    | .0888     | .0893  | .4402 |
| 직접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성적 폭력           | .0049    | .0646     | -.1227 | .1324 |
| 간접효과                       |          |           |        |       |
| 정서표현 양가성 → 관계적 공격성 → 성적 폭력 | .2599    | .0922     | .1004  | .4582 |

그림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데이트 폭력 사이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모형



< .001)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0, t = .08, n.s.$ ).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한 간접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했고( $b = .26, 95\% \text{ CI } [.1004, .4582]$ ),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데이트 폭력 사이를 완전 매개함을 나타낸다.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았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성적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날로 강조되며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데이트 폭력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요구되나 관련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시점에서(이영돈, 2018),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에 이르는 경로를 심리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정서표현 양가성이 세 가지 유형의 데이트 폭력 모두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즉, 이는 정서표현의 어려움으로 유발된 갈등이 데이트 폭력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결과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보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김용희, 2014; 신주애, 조한익, 2019). 더불어, 정서표현 양가성은 관계적 공격성과도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즉,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 간 갈등을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대처를 보이는데(정유지, 2022), 이렇게 억압된 부정적 정서가 상대의 사회적 관계를 손상하는 우회적인 공격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은 세 유형의 데이트 폭력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간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과 관련이 높고(Dewi & Kyranides, 2022), 피해를 타하는 방식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Long & Li, 2020). 특히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과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본 결과는 연인 사이의 관계적 공격성이 신체적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정서 조절 및 표현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과 함께, 피해자의 잘못을 들어 정당화하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관계적 공격성의 개선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같은 적응적인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Xu, Johnson, & Coyne, 2024).

정서표현 양가성과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데이트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이렇게 높은 관계적 공격성이 결과적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관계적 공격성은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걸리며 타인의 중재가 힘들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김정균, 장석진, 2014). 따라서,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찰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위험성 및 추가 폭행 가능성, 보복범죄 위험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의 발생 특성 및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고, 특히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시점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 및 가해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 발생 원인과 범죄 특성에 관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 피해의 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나은, 박지선 (2022).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의 관계에서 권위주의의 매개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27(4), 285-304.

김남영, 박완주 (2021). 대학생의 대인관계 친밀감과 관계적 공격성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과학수사학회지, 15(3), 205-216.

<https://doi.org/10.20297/jsoci.2021.15.3.205>

김민정, 조민아 (2017).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연인관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8(2), 181-202.

김용희 (2014). 대학생의 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1), 291-316.

김정균, 장석진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http://dx.doi.org/10.15703/kjc.15.2.201404.791>

김현승, 박지선 (2023). 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2), 255-275.

박외병 (2018). 경찰의 데이트 폭력 대응 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4(3), 61-76.

신주애, 조한익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1(2), 163-179.

<https://doi.org/10.35185/KJET.11.2.2>

양혜원, 신혜섭 (2006). 남녀 고교생의 이성교제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33-59.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

- 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원혜옥 (2022). “데이트폭력처벌법”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형식에 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14(3), 39-69. <http://dx.doi.org/10.22791/ewhagl.2022.14.3.002>
- 이영돈 (2018).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경찰법연구*, 16(1), 151-178. <https://doi.org/10.22826/jpl.2018.16.1.151>
- 이은민, 최은주, 이주희 (2022).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9), 235-261. <https://doi.org/10.21509.KJYS.2022.09.29.9.235>
- 정유지 (2022). 내면화된 수치심이 연인관계 내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 불안정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4), 993-1007.
- 조민정 (2023. 5. 26.). 데이트폭력 신고 ‘보복’...동거여성 살해한 30대男 검거(종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89766635612856&mediaCodeNo=257>
- 조한익, 이미화 (2012). 정서억제와 정서표현양가성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89-105. <https://doi.org/10.35151.kyci.2012.20.1.006>
- 조현정, 이승연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33-53.
- 주지현, 서경현 (2015). 부모와의 애착 및 이성과의 관계에서 집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5), 209-229.
- 최혜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치안정책연구소 (2022). *치안전망 2023*. 아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Carroll, J. S., Nelson, D. A., Yorgason, J. B., Harper, J. M., Ashton, R. H., & Jensen, A. C. (2010). Relational aggression in marriage. *Aggressive Behavior*, 36(5), 315-329. <https://doi.org/10.1002/ab.20349>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900.x>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31-142. <https://doi.org/10.1007/s10802-005-9009-4>
- Dewi, I. D. A. D. P., & Kyranides, M. N. (2022). Physical, verbal,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anger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31(1), 65-82. <https://doi.org/10.1080/10926771.2021.1994495>
- Ellis, W. E., Crooks, C. V., & Wolfe, D. A. (2009).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and dating relationships: Links to psychological

- and behavioral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8(2), 253-269.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8.00468.x>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T. D. Little, Ed.) (3rd ed). Guilford Press.
- Hayes, N. L., Lloyd-Richardson, E. E., & Marsee, M. A. (2021). Correlate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mong peers and dating partners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 1697-1711.  
<https://doi.org/10.1007/s10826-021-01973-9>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https://doi.org/10.1037/0022-3514.58.5.864>
- Landa, S. U., González, S. N., Martínez, A. P., Leiva, M. G., & Castro, J. L. G. (2024). The boomerang effect of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Relationship power, affectivity and adolescent and youth male-to-female dating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3, 36-52,  
<https://doi.org/10.1007/s10964-023-01854-y>
- Linder, J. R., Crick, N. R., & Collins, W. A. (2002).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Associations with perceptions of parent, peer,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Social Development*, 11(1), 69-86.  
<https://doi.org/10.1111/1467-9507.00187>
- Long, Y., & Li, Y. (2020).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social status insecurity and relational aggression: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cognition about relational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46(1), 84-96.  
<https://doi.org/10.1002/ab.21872>
- Nelson, D. A., & Carroll, J. S. (2006). *Couples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scale (CRAViS)*. Provo, UT: RELATE Institute.
- Straus, M.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https://doi.org/10.1177/1077801204265552>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 Sullivan, T. J., Leifker, F. R., & Marshall, A. D. (2018). Observed emotional expressivit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community coupl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3), 352-361.  
<https://doi.org/10.1002/jts.22296>
- Théorêt, V., Hébert, M., Fernet, M., & Blais, M. (2021). Gender-specific patterns of teen dating violence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insecurities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0(2), 246-259.  
<https://doi.org/10.1007/s10964-020-0-1328-5>
- Xu, M., Johnson, L. N., & Coyne, S. M. (2024). The influence of relational aggression and attachment insecurity on sexual dissatisfaction:

윤혜성 · 박지선 / 정서표현 양가성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Contemporary Family Therapy*,  
46, 37-51.  
<https://doi.org/10.1007/s10591-023-09662-z>

1차원고접수 : 2024. 02. 27.

심사통과접수 : 2024. 04. 24.

최종원고접수 : 2024. 06. 30.

## The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Dating Violence: The Mediation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Hyeseong Yoon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 the public concern about dating violence rises, research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dating violence perpetrators is required.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ambivalenc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ree types of dating violence (physical, emotional, sexual), as well as if relational aggression served as a mediator between ambivalenc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ating violence. Based on a sample of 160 single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e found that ambivalenc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relational aggression, and three types of dating violence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Furthermore, there was a full mediating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between ambivalenc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ating violenc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ambivalenc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higher the relational aggression, and the higher the relational aggression was, the mor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dating violence occurred.

*Key words*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dating violence, physical violence, emotional violence, sexual violence